

광주형 '시클로비아' 도입하자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시클로비아(Ciclovia),' 스페인어로 자전거 도로를 뜻하지만 평상시 자동차 도로를 특정한 날 자동차를 차단하고 자전거나 보행자, 롤러나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도로를 뜻한다.

중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생겨난 말이다. 한국에서 '차 없는 거리(Car Free Street)'를 지정해 자전거 타거나 다양한 환경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도로를 말한다.

현재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는 매주 일요일,공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의 주요 자동차 도로 217km가 시클로비아,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자동차가 차단된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그리고 스케이터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된다. 때때로 이 거리는 에어로빅이나 요가, 살사 춤의 수련 장소가 되기도 하고 공원 공간과 맞닿은 곳에서는 무대가 설치되고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실로 놀라운 공간이다.

800만이 넘는 대도시 보고타 시민 중

매주 평균 150만 명 이상이 시클로비아를 이용하고 있다.

시클로비아는 보고타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다른 도시에도 전파되어 시행 중이고,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도시를 비롯해 미국이나 호주, 아시아의 인도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도시에도 퍼졌다.

그만큼 시클로비아가 도시 교통과 환경의 혁신을 추구하는 시장들에게 매력적이다. 40년 전후, 콜롬비아 보고타는 교통체증, 마약, 범죄 등으로 상징되곤 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 보고타는 시클로비아가 도시의 상징으로, 도시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도시의 훌륭한 아이디어 수출품인 셈이다. 시클로비아는 지난 1976년부터 처음 도입되었고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동안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이어져 왔다. 확고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보고타는 중남미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혼잡 도시였다.

시 당국은 1970년대부터 승용차 의존도를 낮춰서 교통 혼잡과 대기질 개선하고 자전거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시클로비아를 창안했고 이를 시정에 도입했다.

자전거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 도로가 600km로 확대되어 매일 평균 90만 명 이상이 자

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일상화된 도시'가 됐다.

도시 전문가들은 시클로비아 성공적인 운영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광주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이른바 '대자보 도시'를 조성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반가운 뉴스다. 사실 광주는 자동차에 점령당한 도시, 걷기가 불편하고 대중교통은 외면받고, 자전거는 타지 않는 도시다.

광주형 시클로비아, 차 없는 거리 조성도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보고타의 사례를 광주가 수용하자는 것이다. 매주 하루, 도심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를 통제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지구의 날(4월 22일) 전후에 금남로 일부 구간(500m)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해 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짧은 거리에서 단 하루 반쪽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주형 시클로비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자동차 차단 거리가 확대되고, 매주 시행하며 시민참여가 확대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자보 정책도 기후위기 극복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다. 시클로비아,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발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社說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

포용으로 모두가 보살피야

광주에 정착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힘들어 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북한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이는 모두 3만여 명.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편견'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달리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국 출신의 1등 국민', '2등 국민 조선족에 이어 3등 국민'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한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차별을 받는 게 괴로웠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새터민'과 '탈북자' 등 명칭도 혼란스럽다.

지난 1998년 831명이던 북한이탈

주민은 2001년 1043명, 2009년 2914명으로 늘어났고, 올 3월까지 잠정적으로 3만 4121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은 2만 4571명으로 72%를 차지한다. 취업과 학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통일부가 이들에게 초기정착금을 지급하고 취업과 교육, 사회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000여 명에 이르는 19세 미만 청소년도 많은 수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살피어야 할 우리 국민이 틀림없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진정한 동포로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이들을 3만 5000여 명의 시대,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과 공존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기후위기 시대 불법 개문냉방 자제해야

도심 열섬·전력낭비 등 주 원인

마른 장마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광주 주요 상가들이 매장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인들은 개문냉방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 급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개문냉방은 전력난과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수많은 상가가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과 창문 등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런 개문냉방 영업 행태는 충장로 일대 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변화가·식당가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문 냉·난방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등과 시행령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매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소연 한다.

여름철은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은 비수기나 다름없다 보니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개문냉방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것이다. 여름철 개문냉방은 실외기가 내뿜는 열풍을 늘려 도심 열섬현상과 전력 낭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지자체는 여름철 전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변화가·식당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 방지 집중 홍보·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개문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문냉방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당장 8월 이후엔 전력난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치(93.6GW)보다 높은 97.2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당국은 최대 수요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날씨에 따라 전력수요가 달라지겠지만 요즘처럼 폭염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선 전기 절약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방탄소년단'(BTS)의 매행 진(왼쪽)이 1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일대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최근 군복무를 마친 진은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파리=AP/뉴시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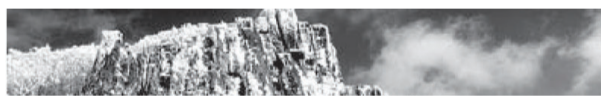
눈을 떴는데 벌레가 됐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여행 판매원으로 일하던 그레고르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것을 발견한다. 흡사 바퀴벌레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팔다리는 8개로 늘어났고, 머리 위로는 길다란 더듬이가 뻗어났다. 준수했던 그의 얼굴은 멀리서 봐도 징그러운 그야말로 '벌레'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변한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가정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여전히 일터로 향했다.

초반에 정성껏 돌봐주던 가족들도 어느새 그를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점차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대화조차 단절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고르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가족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하게 된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죽음 이후, 가족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가족들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 모습이었다. 그레고르의 존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소설은 그레고르가 죽은 후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20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인간 존재의 불안과 부조리를 탐구해 '카프카적'이라는 용어로 탄생시킨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인 소설 '변신'이다. 변신은 1915년 발표된 이래



수많은 논의와 해석을 불러일으킨 소설이다.

소설은 인간이 벌레로 변하면서 본인고 주변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묘사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물며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꺼려하기 시작한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면서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이를 보며 사교육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정체성과 자아 상실을 연상시켰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종국에 그의 인간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벌레로 취급한다. 사교육이 학생들을 단지 성적과 학업 성취도만으로 평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 인간적 가치는 무시된 채, 오로지 성적만이 중요한 척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관은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과 자아 실현을 방해하며, 인간적 가치를 왜곡시킨다.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체성과 자아를 상실하게 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며,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을 초래하며,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찾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섭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